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마음의 움직임은

하늘의 구름처럼 스스로 사라지니

마음에는 어떠한 기준점이 없느니라.

하늘에 구름들이 형성되더라도 하늘의 본질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름이 흩어진다 하더라도 하늘의 본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지요. 하늘은 더욱 넓어지거나 맑아지지 않으며 좁아지거나 탁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한다거나 어떤 것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본성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의 일어남이나 사라짐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본성품은 '공성'입니다.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이 '명정성'입니다. 이 두 측면에서 본다면 마음은 서술하려는 의도에 따라 구분되겠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마치 이 두 개념이 독립된 실체이기라도 한 것처럼, '공성'이라는 개념이나 '명정'이라는 개념 어느 하나에만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궁극적인 마음의 본질은 모든 개념이나 정의, 편파적인 견해를 넘어섭니다.

아이가 '나는 저 구름 위를 걸을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구름 위에 서더라도, 발 디딜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기 전까지 생각은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다 생각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법의 '현공일여'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4파전'

수열·백운·월운·도산 스님 6월 20일 후보 등록 마감

오는 7월 18일 열리는 한국불교태고종 제 2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에 수열·백운·월운·도산 스님(기호순)이 확정됐다. 이에 네 후보들은 순위 기호가 확정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유세 운동에 돌입했으며, 7월 9일(밀양)·10일(대전)·12일(서울 전승관)에는 각각 정권 발표 및 공개 토론회를 펼칠 예정이다.

중앙총회의원만이 총무원장 선출 투표권을 갖던 과거와는 달리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이번 선거에는 중앙총회의원, 교구총무원장, 교구선거인단 등 147명이 투표권을 갖게된다. 특히 교구선거인단은 30명의 종도당 1명꼴로 선출된다.

이 네 후보 가운데 실제로는 종단사 간 행위원회를 결성해 (태고종사)를 발행하며 한국불교사에 대한 굴절된 시각을 바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수열 스님과 보수승가회의 수장직을 맡으며 태고종의 개혁을 선도해 온 도산 스님, 그리고 사정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거친 월운 스님 등 3파전으로 압축된다.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네 후보중 5월초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이는 월운 스님(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지난 2009년 비리 의혹으로 중도하

차한 운산 스님을 대신해 총무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인물이다. 6월 24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관련 부채문제 해결 △교육제도 보완 및 교육인프라 구축 △수행공간 확보 및 위계질서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종단쇄신위 구성, 집단 지도체계 도입 등을 통해 중무행정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투표인단 147명 확정

7월 9~12일 토론회 개최

7월 18일 선거서 최종 결정

도산 스님도 서울 종로로오피스텔에 선거 캠프를 마련하고는 6월 18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님은 "50여억원에 달하는 종단의 부채는 가장 먼저 꺼야할 발등의 불이므로 종단 소유의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책임 있는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또한 스님은 "8대 핵심기조와 18대 공약을 실천해 제 2의 창종에 버금가는 재도약의 초석을 놓겠다"며 중무행정 투명화, 승가전통 회복, 종단



6월 20일 기호 추첨 후 네 후보들은 모여 공명선거를 다짐했다. 왼쪽부터 도산·수열·백운·월운 스님 순. 사진=박재완 기자

재정 안정을 3대 공약원칙으로 내세웠다. 제주교구총무원장을 비롯해 종단사 간 행위원장, (사)서귀포불교문화원 이사장 등의 이력이 있는 수열 스님(선광사 주지)도 6월 20일 한국불교전승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수열 스님은 "태고종 부채의 가장 큰 요인인 신촌 봉원사 연지원 문제를 정상화해 부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운을 댄 뒤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감사 기관 부활을 비롯해 각종 법안 지원서비스, 창건주의 승계보장, 사찰보유문화재 지원 서비스 등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교육정책 △복지사업 활성화 △인재 발굴·영양 △종도·종단사찰 질적 향상 도모 △종단 정통성 계승 위한 정

책 △종단 현안문제 해결 △포교사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문종이면서 같은 지역의 제주 출신의 도산 스님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서로 성향이 달라 굳이 함께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호한 어조로 일축했다.

6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힌 백운 스님도 "지금 태고종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종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공약했던 종단 현안 문제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오히려 종도 간에 불신과 대립만 난무해 종단의 명예와 위상이 크게 실추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한국·대승·현대불교 기치 다시 세우겠다"

도법 스님, 결사추진본부장 연임

"한국불교를 한국답게, 대승불교를 대승불교답게, 현대불교를 현대불교답게 만드는 것이 결사추진본부장 해야할 일입니다. 이 같은 기조와 방향을 만드는 데 지난 2년을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6월 17일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본부장에 연임된 도법 스님(사진)은 20일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도법 스님은 결사추진본부의 2년간의 성과가 결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있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사추진본부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종단 안팎으로 적지 않았던 상황. 특히 결사의 방향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 승가의 변화가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법 스님은 공감대가 더디지만 결사의 방향성을 구축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재



쇄신 결사 방향 구축 노력 "가시적 성과 있었다" 평가 구체적 실천론이 향후 과제

차 강조했다. "결사의 방향과 이해와 인식에 대한 공감대는 더디지만 천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교계 행사에 '생명평화결사'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

례입니다. 사실 2년 결사로 종단이 바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부대중이 '내가 하지 않아도 나는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결사추진본부는 6월 말로 쇄신위 활동이 종료되면 본래 사업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종교평화선언 발표를 비롯해 '미래세대'를 주제로 한 야단법석 시즌3, 이주민 불자 무차대회 등을 진행한다. 오는 8월 9일 500일을 맞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도 보다 자발적인 동참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터뷰 말미, 도법 스님은 결사의 주인공은 총무원 집행부가 아닌 사부대중 공동체임을 재차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쇄신안이 나와도 대중들의 동참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성과 쇄신 결사의 시작은 총무원 집행부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주인공 사부대중이 주체가 돼야 합니다. 사부대중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졌을 때 결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신종일 기자

동국대 정관 개정 놓고 종관위·동창회 '재갈등'

제가 이사를 추천하는 정관 개정을 두고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와 동국대 총동창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동국대총동창회(회장 이연택)은 6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국대 재단준법 정관 채택 촉구 동문·불자 10만인 서명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총동창회는 선언문에서 "총무원장, 재단 이사장 측의 부당한 업무처리 시도 등은 동국 가족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았다"고 성토했다.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덕문, 이하 종관위)도 6월 18일 제90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 스님들은 총림학교관리법 제7조 3항의 감사권을 확실하게 하고 정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총림학교의 감사 보고를 8월까지 받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종관위는 총림학교법 제7조 3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꾸려 법 개정 전담을 위임하기로 했다. 신종일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2013년 7월 20일

5. 문의처

- ♣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대학 (南京中醫藥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 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7월 20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4, 5급 보장)

6. 한국상담처

- 02) 511-2026~ 2027 / 핸드폰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